# 새해는 매일 유아발표회

## (요5:19~29)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해는 매일 유아발표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새해는 매일 매일을 유아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사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교회에서 다들 보냈습니다.
교회 절기 때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기 행사로 교회학교의 발표회가 있습니다.

위로는 청년부부터 해서 대학부 중고등부 그리고 소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가 있고 6살 7살, 교회학교 구성이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4~5세로 이루어진 유아부와 영아부가 있고…

그런데 이런 절기 때 하는 교회학교의 발표 때마다 뭐 여지없습니다, 적중률 100%.

그때는 교인들이 관객이 되지요.

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분위기를 살리고 확~ 들뜨게 하는, 그런 부서가 바로 유치부이고 유아부입니다.

4살부터 5살 유아부, 6살 7살 유치부가 어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목사입장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어떨 때는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율동을 하러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찔아찔 합니다.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과격하게 사회의 노래하는 모습들을 끌어당기고 난리여서 걱정이 태산 같고, 어른들도 박수는 칩니다마는 걱정이 반이지요.

그런데 유아 유치부가 나와서 할 때가 되면 온 교회가 다 사로잡혀 버리고 들뜨게 됩니다.

하~ 너무 예쁘고, 하는 짓이 너무 귀엽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이 죽어납니다.

유아부, 유치부를 발표회를 하게 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연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연습을 시켜도 진행이 안 됩니다.

우선 무대 위로 내 보내려고 그러면, 관객들을 보고 무서워서 나가지 않으려는 애가 절반이고, 또 혹시나 나가더라도 가르쳐준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까불어 대는데, 그걸 보고 모르는 교인들이 그냥 귀여워서 웃지 않습니까? 왁자하고 웃어대면 그 반응을 즐기면서 흥분해 가지고 더 까불어 댑니다.

도저히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방법이, 선생님이 앞장서서 '하나 둘! 하나 둘!' 둘씩 손잡고 줄을 세워 가지고 따라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관객들의 시선이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앞에 앉습니다.

어린이들을 쭉~ 두고 앞에 앉고서는, 선생님이 음악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그걸 보고 따라 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 유아들의 발표회, 유치부의 발표회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요 유아부의 발표회, 이것을 새해는 일 년 내내 하자고요.

아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올해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유아발표회만 하다가 죽자 이 말입니다.
그 유아발표회가 왜 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매일 매일을 유아발표회로 살아갑니다.
유아발표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무릎 꿇고 율동을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그런 유아발표회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용기 있게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아직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동사가 3개가 나오거든요.
'영생을 얻었고'의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심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때 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서, 옮겨진 것이 완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영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육체를 잊고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이 영원한 생을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뒤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든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고 있든지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영생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영생을 살 때의 모습의 증거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 때는 어떤 모습이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살 때는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요, 그것은 지금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신령한 몸으로 살 영생을 지금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 때, 밥 지어먹고 직장 나가고 학교생활 하고 교회생활 할 때,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 때에 증거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완료되었고 지금 나는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영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린 이 증거를, 당신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 하십니까? 이렇게 찾으려 그래요.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이 증거라면, 죽은 다음에 굿바이 인사하고 나면, 불교도들은 극락으로 가고 이슬람교도들은 알라신에게 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까? 주관적인 확신이 증거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아니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필요로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먼저 증거를 알기 위해서는 영생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연결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영생을 못하는 것은, 마음이 돈에 붙어 있어서 영생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거기서 영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내도 남편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생이 안 되는 것은 직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 연결되는 것도 영생입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생명으로서의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생이라서, 부활 뒤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것이고,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삽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유아발표회라는 겁니다.
그 유아발표회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유아발표회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장서서 걸어가면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쭉 세워놓고 선생님이 앞에서, 선생님이 율동을 시작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율동을 합니다.
이게 중고등학교나 대학부나 청년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중고등학교,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의 발표회는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관객들과 시선을 주고받습니다.
관객들의 호응에 따라서 이쪽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관객도 반응하고 관객의 호응에 대해서 나도 반응합니다.
그러나 유아부 아이들은, 4.5세, 6.7세 아이들은, 관객은 자기들을 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관객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무릎 꿇고 앞에서 움직이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을 따라서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의 예가 바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가서, 그 많은 병자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를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

는 소원을 얘기해 버립니다.
‘물속에 먼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고 뚝뚝 끊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에서 유별나게 특별히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7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대답을 마쳤는데, 8절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가는 거 그게 미신인데 뭐 그까짓 걸 믿고 있느냐 라든지, 내가 다시 묻노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든지.
그런데 8절에 곧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 한다’는 말씀을 따르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 오셔서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계시지마는 주님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 갔더니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게 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대로 움직여 가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입이 움직이는데, 뭐라고 움직이시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이, 유아부 아이들이 관객을 보고 있지 않고 선생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아버지만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아버지 입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입을 보면서, 주님이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그 입을 보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거로 끝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계시는 동안에 38년 된 병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아버지만 만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을 살고 있는 영생을 사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할 뿐이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와 연결돼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라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내가 직접 사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끄시듯 하나님이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따라 갔더니 거기에요.
근데 보통 사업가들은 지식이 있고, CEO로서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고서 장로님 사업가는 기도를 합니다.
안수집사님 사업가도 내가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다 판단해 놓고,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생을 얻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장로님 사업가, 안수집사님 사업가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안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만나도, 영생을 얻은 남편은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아내는 남편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증거에요.
자식을 봐도 마찬가지에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이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영생의 증거인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입니까?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두개가 합쳐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스스로 하고 있어요, 또 스스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동전의 앞뒤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유아들이 선생님을 따라 하듯이, 그렇게 유아발표회 하듯 삶을 사셨습니다.

우린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의 특성이 뭐냐 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반응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관객들을 보며 까부는 것처럼, 또 관객들이 쭉~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움츠러드는 것처럼, 움츠러드는 것도 보고 반응하는 것이고, 까부는 것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되고, 반응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죄의 힘을 붙잡아 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길만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죄의 힘을 눌러버릴 수가 있고, 억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죽으신 모습 그대로가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마에 면류관을 쓰신 걸 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려 할 때, 나의 생각은 죽었다!

뭐에 대해서? 가정과 사업과 뭐 일과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손대서 하려고 하는 나는 죽었다!

주님의 발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궁리하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발은 죽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들어온 걸 보면서, 내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소원이 죽었다!
내 살갗이 채찍에 맞아서 다 찢겨나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채찍 맞은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좋아해서 내 마음에 살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스스로 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죄가 있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있는 우리들,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보며 동일시함을 통해서만 스스로 하려는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 보세요!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다~ 벗겨지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내 소원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보고, 남편과 아내와 직장을 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처음에는 잘 안돼요, 그러나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죽었다고, 이마부터 손과 발과 창과 살갗, 주님의 채찍 맞은 살갗까지 계속 내가 동일시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바라볼 때, 세상이 안보이고 관객이 안보이고 선생님이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안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데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꾸자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자꾸자꾸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실전입니다.
영원과 연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이 연결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하는 유아발표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지금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2013년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첫머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유아발표회로 일 년 내내 매일매일 유아발표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이 땅에 발표하실 것이 있으셔서 내 앞에서 움직이시려 하십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죄성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명확히 보며 하나님이 발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하므로, 내 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발표되는 유아발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